

안전경영 바탕으로 세계 음료시장 개척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

동아오츠카(주)는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식음료 제조회사이다. 당초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 속해있었으나 1979년 분리되어 식품회사로서 면모를 갖추고 안양에 제1공장을 설립했다. 특히 지난 1980년 청주에 제2공장을 준공한 것에 이어 1996년 경남 함안에 제3공장 칠서공장을 가동하면서 우리나라 청량음료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동아오츠카(주) 하면 제일 먼저 알칼리성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가 떠오른다. 그리스 산토리니의 파란 하늘과 바다, 하얀 집이 어우러져 큰 화제가 됐던 포카리스웨트 광고는 국민들의 뇌리 속에 깨끗하고 맑은 회사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검은콩을 우려낸 블랙빈테라티, 녹차음료 그린타임, 과즙음료 데미소다, 콩과 과일을 구워낸 소이조이, 허니레몬 등의 기능성 음료와 한국인의 청량음료라고 할 수 있는 오랑씨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동아오츠카(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맛과 기능을 조화하여 21세기 건강 지향 기능성 음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세계 음료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안전'이 기업경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 1998년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 무재해 목표 개시 후 14년간 '무재해 12배수' 달성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철저한 안전 관리가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음료 소비 패턴을 주도해가고 있는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을 찾아가봤다. 취재 김성태 기자 gshuh@naver.com

제조공정별 철저한 안전관리

인간의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는 식음료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만든 건강한 제품이어야만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에서는 제품 생산에 있어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중시하고 있다.

칠서공장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일일·주간·월간 정기 점검, 월 1회 관리감독자에 의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칠서공장의 안전

관리 면모는 제조공정에서 곧바로 엿볼 수 있다. 이곳의 제조공정은 원재료 입고 및 보관 → 조합(배합) → 충전(Can 공급) → 살균 → 검사 및 포장 → 출하(창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공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소음으로 인한 청각손실 위험은 물론 지게차 등 기계·기구에 대한 협착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곳은 직원들을 위해 최첨단 방음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다. 칠서공장은 종합적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 내 소음관리 및 귀마개 착용, 순환근무를 통해 소음성난청을 예방하는 한편, 청력 이상자에 대한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또 협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벨트 및 체인식 동력 전달기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모든 공정을 자동화시킨 가운데 기계 전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비상 시에는 자동적으로 작동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게차 운행 구획선 표시, 반사경 설치 등을 통해 입·출하 시 지게차로 인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5S가 아닌 6S운동

칠서공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무재해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흔히 5S, 즉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실시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칠서공장은 여기에 안전(Safety)을 추가해 6S운동을 실시해 무재해 사업장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6S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해 안전의 습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작업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와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통해 최신 안전관리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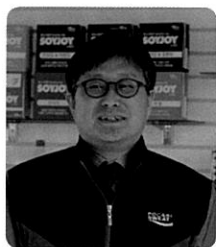
전 직원이 함께하는 안전활동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해 칠서공장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라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에 소홀하거나 심리가 불안할 경우 재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테니스, 산악회, 낚시, 탁구, 배드민턴 등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장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 분임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 활동 분임조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격려한다. 직원들 상호 자극과 함께 꾸준한 안전의식을 견지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활동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무재해를 달성해나가는 선진 안전 사업장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러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여 무재해 15배수, 20배수 달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중시하며 선진 안전관리 활동의 펼치는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mini interview



이원희 동아오츠카(주) 대표

안전경영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

“안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각 기업들은 품질경영에서 안전경영으로 경영철학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도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 확보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조그마한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아오츠카(주) 칠서공장은 무재해 12배수 달성을 실현했지만 계속해서 작업현장에 잠재돼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업장 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